

# 발명으로 꿈을 이룬 세계의 여성들(9)



鄭榮春  
〈발명가, 코리아스엔 대표〉

이 글은 저자 정영춘씨의 저서 '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화동출판사)의 내용으로 저자의 승낙을 받아 연재하는 것임.

〈편집자 주〉

## 나의 죄는 발명에 대한 열정

“...1981년 초에 발명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려던 아이디어가 좌절되었다. 마치 세상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납득시키고 노력하다가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고 심지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침내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가망은 전혀 없었다.”

오늘날 유고슬라비아에서 비다 포포빅은 유명한 발명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76년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 해 비다는 자신의 두 번째 발명품이자 가장 중요한 발명품인 비다실(Vidasil)을 완성했지만 그것이 대중에게 알려지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비다실은 1,500°C까지도 견디는 불연성 단열재를 생산하는 공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제조과정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도 고안해냈다.

다른 수많은 발명가들처럼 비다에게도 발명에 관한 생각이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발명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가족과 남편과 아이들도 그 다음 관심사였다.

“내 병은 8개월 간 계속되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그들과 협조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내게 무기력밖엔 줄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말 내 병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올바른 처방을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아들이었다. 그 애는 손을 잡고 병원 침대 옆에서

‘엄마, 엄마가 공장을 세우지 못하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엄마한테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독일로 가서 공장을 세우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놀라움과 감사한 마음을 안고 내 아들을 쳐다보았다. 갑자기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것 같았고 나는 처음으로 병이 낫기를 바랐다.”

비다는 감성적이지만 강한 의지와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자신을 약

하게 만드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 같은 것이 있었다. 광대뼈가 드러난 그녀의 외양은 멋졌고, 그녀의 두 눈은 맑았다.

그녀는 병상에서 일어났고 아들이 예상했던 대로, 공장을 짓고 기계를 만들어 설치하게 되었다. 결국 그 공장에서 비다실을 생산하게 되었다.

친구들을 통해서 그녀는 작은 공장건설에 필요한 용자를 얻을 수 있었다. 정부는 감독 한 사람과 근로자 두 명을 파견했지만 그들은 창의성과 활동성에 익숙지 않은 이들이었다.

그들에게 비친 비다는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일상을 방해하는 외부인이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발명품을 생산하려는 생각만 가진 편협한 여성에 불과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로 공장가동은 잠시 중단되어야만 했다.

임시변통으로 비다는, 경영자는 물론 공장 감독관의 1인 2역을 맡아야 했다. 공장의 재정은 신통찮았다. 작업장은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았고 건조기가 없어서 햇빛에 말려야 했고 가공처리와 절단기가 없어서 그 모든 일들을 직접 손으로 해야만 했다.

비다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겨우 물건을 하나 팔면 그 돈은 바로 공장을 완성시키는 데 들어갔다. 하지만...나는 행복했다. 공장에 있으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때때로 창의적인 직관도 하나의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 노력 없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자주 내 스스로가 만든 이 잘못된 생각으로 고통받아왔었다.”

비다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관료주의적인 시각으로는 수상쩍은 일이었다. 그들은 혁신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고, 그들의 습관이 변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못했다.

비다는 태어나면서부터(1940년) 고생에는 익숙해져 있었다.

몬테그로(Montegro)출신 유고슬라비아인이었던 비다의 부모님은 가난했다.

비다의 어머니는 전혀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고 일곱 아이들중 첫째인 그녀는 어머니를 도와 형제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했다.

어린 비다는 책읽기와 공부하기를 좋아해 항상 반 수석을 차지했다. 1959년 그녀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집안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기 바라는 부모님의 뜻과는 달리 화공학과와 연금학 분과에 입학하였다. 대학에서의 첫 1년은 끔찍했었다. 비다는 책, 음식, 옷은 물론 거의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다.

국가에서, 비다가 뛰어난 발명가의 소질을 싹틔우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 것은 외국에서 그녀를 인정하고 나서였다. 그녀가 1986년 12월 국제 발명전인 브뤼셀유레카(Brussels Eureka)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다. 비다실이 갖게 된 명성의 결과로 드디어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비다는 공장을 완성할 용자를 얻게 되었다. 갑자기 그녀의 집 앞에는 300명이 넘는 유고슬라비아의 구매자들이 줄을 섰고 당국에서도 갈채를 보낸 그녀의 발명품은 1987년 그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정해졌다.

비다실의 주문이 쇄도하여 전 생산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공들도 1년 뒤 그녀의 공장 문을 닫는 일은 막지 못했다.

“나는 자신을 되찾았고 이제 내 생각이 홀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그러나 그대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나는 지쳤고, 설사 발명가 자신이 스스로 이룩한 공장이라 할지라도 발명가의 위치는 공장주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비평가들에게 진력이 났고, 70여 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고 사기진작을 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도 그렇다.”

물론 거기에는 판사인 남편과 어린 두 아들이 있는 그녀의 가정문제도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물음을 제시해볼 수 있다. 여성발명가들의 생활이 남성발명가들과 같을 수

## 탁월한 처녀 발명가

1989년 7월 초 평양은 젊은이들의 왕국처럼 보였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은 '제13회 세계 청소년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도착하는 참가자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축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수천 명의 무희들과 체조선수들의 파도치는 깃발, 꽃과 햇불들, 수백 마리의 비둘기 때, 상징물들의 물결, 그리고 슬로건들, 관중들의 거대한 박수갈채가 평양시내를 뒤덮었다. 바로 그 때 그 환호성의 뒷걸음에서는 청소년 발명품과 새 기술을 전시하기 위한 제1회 평양국제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 전시장에서는 세계 지적소유권기구가 수여하는 금메달이 증정되었다. 수상자의 한 사람은 처녀 발명가인 선운영 양(1964. 9. 10일 생)이었다.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그녀는 1987년 평양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외과분야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한 레이저 개발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녀가 고안한 장치는 전통적인 침술 사용 대신에 침 끝에 레이저 전파를 쏘여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것이었다. 선운영 양과 같이 일했던 연구원들은 그녀에게 부족한 전자분야기술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젊은 여성발명가는 그녀의 발명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러워 했다. 그녀는 이미 5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치료했고 장래에 다른 중요한 발명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의학박사들은, 여성인 경우에는 55세까지, 남성은 60세까지 급여를 인상받기 위한 목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은 의사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그들의 지식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운영박사는 설명했다.

선운영박사의 아버지는 현대사를 가르치는 대학교수며, 어머니는 섬유공장의 노동자였다. 그녀는 네 딸 중 막내다. 그녀는 아직 부모와

있을까. 사람들은 천재든 아니든 간에 여성들이 여전히 어머니와 아내라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남아주길 바라는 것이 사실이다. 간단히 말하면 여성발명가들은 이 모두를 다 해낼 수 있어야 한다.

“6년 동안 나는 매일 175km를 운전해서 집과 공장을 왔다갔다 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한번도 제시간에 집에 온 일이 없다. 어떤 때는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공장에서 밤을 새운 적도 있다. 가족들에게는 몹시 죄스러움을 느낀다. 내 양심이 어디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다. 내가 가진 유일한 죄는 발명에 대한 나의 열정이다.”

결국 비다는 집에서 그 열정을 충족시키기로 결심했다. 1988년 2월 이후 그녀는 집에서 연구를 계속했다. “다시는 나더러 국영기업에서 일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주부로 돌아가서 내 시간을 꾸려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제 남편과 대학에 다니는 두 아이들이 이 점에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 발명가가 발명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영감의 원천은 아니다. 그런 이유로 그녀는 역시 스타인벡, 도스토예프스키, 브로드스키, 니체, 엘리엇, 헤겔, 폴크너, 프롬, 사르트르와 지드의 작품들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기술과 관련된 과학서적뿐만 아니라, 가끔 문학작품을 읽는 일도 필요하다. 책의 도움없이는 공허하게 되고 많은 일을 애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 그녀가 남자였더라면 자신의 일생을 과학에 바친다는 이유로 받았던 비난은 덜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그녀의 답변은 이렇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모든 개인이 그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가치로운 일이다. 나는 정말 흥미롭고 열성적으로 그 일을 해왔다.”

함께 살고 있으나 약혼자가 소련에 있는 키에프에서 전문의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곧 결혼할 것이라고 했다. 선윤영박사에게 결혼할 미래의 남편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그는 요리

도 잘 하고 가정에서는 그녀의 일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녀의 연구활동이 계속하여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다. <♣>

## 신상품 무료 수출지원 안내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우리 업계의 활발한 신상품 개발과 수출상품화를 통해 수출저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상품 발굴 및 수출지원 사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여러분의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국내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획득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품으로서 수출이 유망한 신규 개발 상품
- 지원 절차 및 내용 : 소정양식의 신청서류 접수, 심사 및 지원결정, 카타로그 등 상담절차 접수, 해외 81개 무역관을 통한 상품 홍보 및 해외인콰이어리 발굴, 해외 시장정보 제공 등
- 신청 접수 및 비용 : 수시로 접수하며, 신청 및 지원 관련 비용은 무료임
- 문의처 : 무한무역진흥공사(KOTRA) 시장개척부 수출지원 2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무역회관 1304호, 전화 551-4383 / 4)

대한무역진흥공사

## 신 간 안내

### 중 상표법 개설

(260면, 8,000원)

YOUME특허법률사무소 편저 · 한국발명특허협회 발행

문의 : 발명특허자료판매센터(551-5571/2)